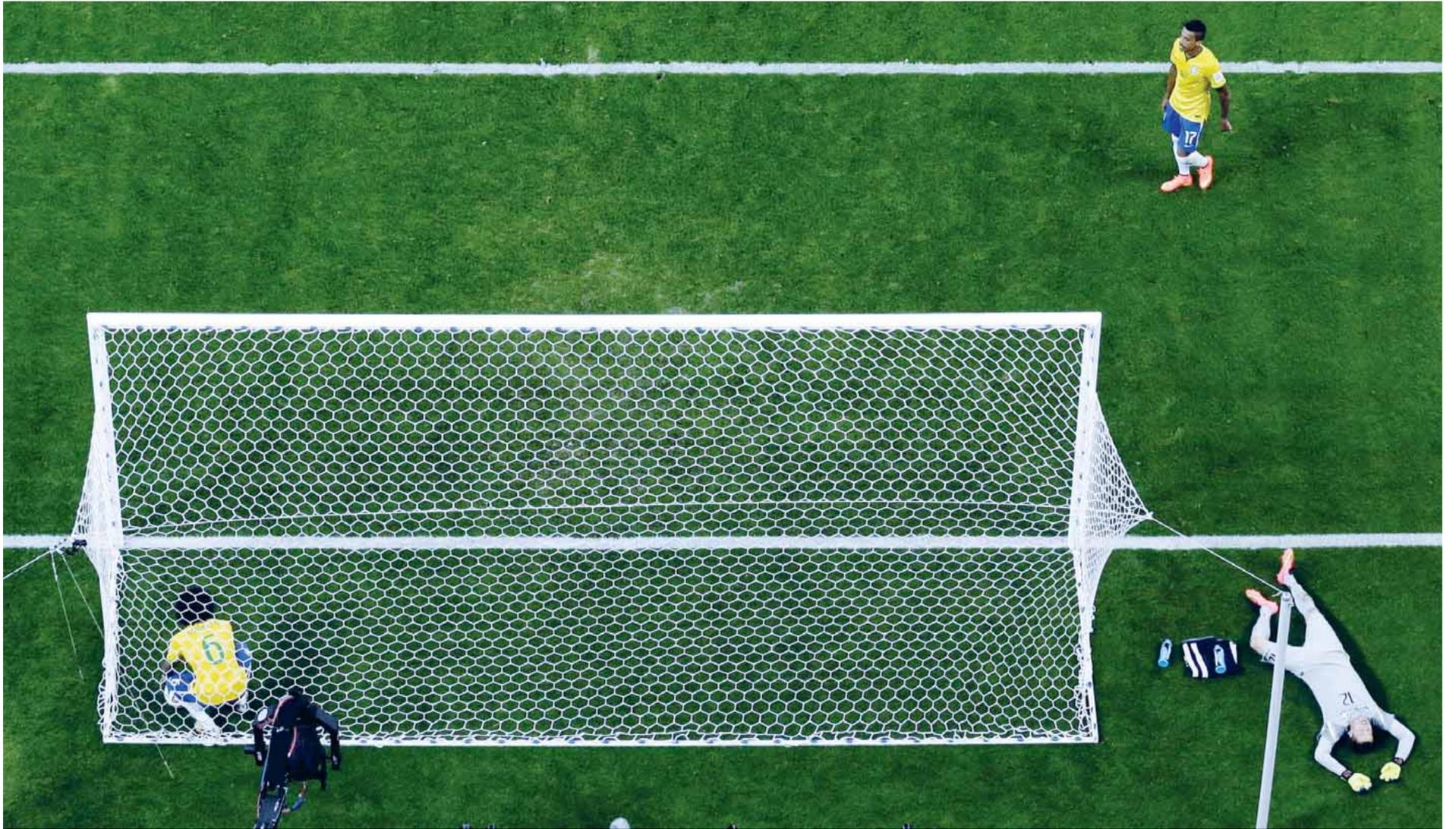


# 삼바, 獨하게 당했다



삼바축구 '실신' 브라질의 골키퍼 즐리우 세자르(맨 오른쪽)가 9일 오전(한국시각)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독일의 안드레 슈를레에게 후반 추가골을 허용한 뒤 경기를 포기한 듯 골문 옆 그라운드에 누워있다. /연합뉴스

## 브라질, 독일식 압박축구에 개인기 '꽂꽂'... 1-7 참패

### 獨, 통산 223골 최다 득점국... 16골 클로제, 개인 최다 골 기록

세계 축구사에서 2인자에 머물러온 독일이 독주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독일은 9일(한국시각) 열린 2014년 브라질월드컵 4강전에서 브라질을 무려 7-1로 완파했다.

브라질은 5차례 월드컵 우승에 빛나는 전통의 강호로서 이번에도 개최국의 이점을 안은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독일은 너무나 강했다.

독일은 상대 진영에서부터 압박을 가해 브라질이 장점인 개인기·스피드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역눌렀다. 선제골을 얻어맞고 흔들리는 상대를 힘과 정교한 패스로 몰아붙여 그로기에 빠뜨렸다.

독일은 대승으로 브라질에 차욕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의 1인자를 자부하는 브라질의 위상까지 흔들었다.

이날 다득점으로 독일은 월드컵 본선 통산 223골을 쌓아 수십 년째 1위를 지킨 브라질(221골)을 제치고 최다 득점국이 됐다. 독일은 또 8번째 월드컵 결승에 올라 브라질(7차례)을 제치고 이 부문에서도 단독 선두로 나섰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독일은 본선 통산 100경기를 달성,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센추리클럽'을 열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통강호 이탈리아, 신흥강호 스페인이 처절하게 몰락했다. 이들 국가와 앞서거나 뒤서거나 경쟁하던 독일이 드디어 독주할 시대를 맞이했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독일의 강세는 자국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의 부흥기와 함께 일찌감치 예견됐다.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는 2012-2013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맞붙어 독일 클럽의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은 4강, 도르트문트는 8강에 진출해 강세를 보였다.



클로제

독일은 전통적으로 힘·높이·강한 체력을 앞세운 선이 굵은 플레이를 펼쳐 '전차군단'으로 불렸다. 요아힘 뢰브 감독이 이끄는 독일은 강력한 전진 압박, 스페인식 점유율 축구(타키타카), 네덜란드식 빠른 역습 등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뢰브 감독은 스페인의 몰락과 함께 저평가를 받고 있는 타키타카를 전술의 기본 틀로 고수하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타키타카의 원조인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던 펠 그라디올라 감독은 현재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다. 독일 대표팀 핵심요원의 대다수는 뮌헨에서 전술적으로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조련되고 있는 선수들이다.

힘과 근성을 앞세우는 전통을 기반으로 최신 흐름이던 스페인의 정밀함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독일의 선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축구의 전설 로타어 마테우스는 최근 스페인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식 타키타카'를 거론하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마테우스는 "독일식 아름다움이 줄었으나 더 많이 승리할 수 있게 됐다"며 "월드컵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둬야 할 것은 승리"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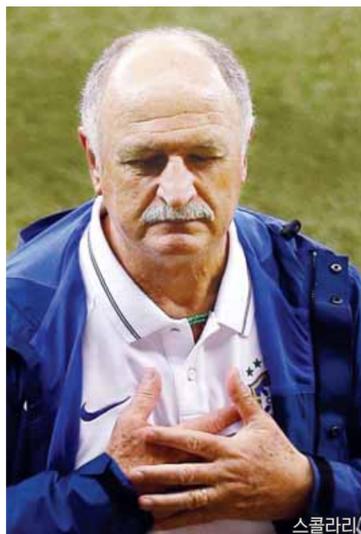
자국 리그에서 우수 자원을 계속 공급받는 데다가 전술적 완숙까지 누릴 수 있게 된 독일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까지 들어올려 전성시대를 선포할지 주목된다.

독일 축구는 전통적으로 힘·높이·강한 체력을 앞세운 선이 굵은 플레이를 펼쳐 '전차군단'으로 불렸다. 요아힘 뢰브 감독이 이끄는 독일은 강력한 전진 압박, 스페인식 점유율 축구(타키타카), 네덜란드식 빠른 역습 등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뢰브 감독은 스페인의 몰락과 함께 저평가를 받고 있는 타키타카를 전술의 기본 틀로 고수하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타키타카의 원조인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던 펠 그라디올라 감독은 현재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다. 독일 대표팀 핵심요원의 대다수는 뮌헨에서 전술적으로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조련되고 있는 선수들이다.

힘과 근성을 앞세우는 전통을 기반으로 최신 흐름이던 스페인의 정밀함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독일의 선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축구의 전설 로타어 마테우스는 최근 스페인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식 타키타카'를 거론하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마테우스는 "독일식 아름다움이 줄었으나 더 많이 승리할 수 있게 됐다"며 "월드컵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둬야 할 것은 승리"라고 강조했다.

자국 리그에서 우수 자원을 계속 공급받는 데다가 전술적 완숙까지 누릴 수 있게 된 독일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까지 들어올려 전성시대를 선포할지 주목된다.



스콜라리

## “나를 용서하소서”

### 스콜라리 브라질 감독 “모든 책임은 내게”

안방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꿈을 허망하게 날린 브라질 대표팀의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은 “축구 인생 최악의 날”이라는 말로 참담한 심경을 표현했다.

스콜라리 감독은 9일(한국시각)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미네이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독일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4강전이 끝나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 결국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나눌 수 있지만, 라인업을 결정하고 전술을 짜는 사람은 나였다. 나의 선택이었다”면서 책임을 통감했다.

이어 “우리는 첫 골을 허용한 이후 혼란에 빠졌고 공황 상태에 놓였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참패를 돌아봤다.

또 브라질 국민에게는 “이런 경기를 용서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결승에 오르지 못해 죄송하고, 3·4위전에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 “저를 보호하소서”

### 브라질 마피아, 네이마르 부상입힌 수니가 살해 위협

브라질 마피아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콜롬비아 수비수 후안 카밀로 수니가(나폴리)가 페이스북에 심경글을 남겼다. 수니가는 브라질 주 공격수 네이마르를 부상 입혀 중도하차 시켰다.

수니가는 최근 페이스북에 “신이여 저를 보호하소서”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9일(한국시각) 브라질과 독일 4강전에서는 “아직 추격할 수 있다”며 브라질을 응원했다. 하지만, 브라질은 독일에 1-7 참패를 당했고, 결승행이 좌절됐다. 이에 비난과 응징의 화살이 수니가를 향했다.

브라질 최대의 마피아조직 PCC는 하루 뒤 “네이마르에게 가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주장하며, 수니가에 대한 응징을 예고했다. 이 같은 험악한 분위기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이탈리아 당국에 수니가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콜롬비아는 월드컵 결과 때문에 국가대표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적이 있다.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자책골을 넣어 콜롬비아의 조별리그 탈락의 원흉으로 자목돼 축구 팬의 충격을 받아 숨졌다.



수니가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